

광주 남구 4조 들어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추진 ... 300만평에 주거·산단 조성 사업규모 커 재원마련 등 과제 산적 ... 환경단체도 반발

광주시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주변에 10년간 4조원을 투입, 10km(300만평) 규모의 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레저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영산강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지역민들도 사업 규모가 워낙 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는 "나동강에는 5조원짜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광주전남의 미래까지 창출을 위해 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친수개발사업 명칭(에코델타시티)에서 이름을 따와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에코 센트럴 시티(가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업안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시행 예정이며, 총 10년간 4조원이 투입된다. 공사비 2조3400억원, 토지 등 보상비 1조, 조사 설계비 600억원, 관리비 및 기타 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업비 부담은 수자원공사 80%, 자치단체 20%, 이중 상당부분은 민간자본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들은 300만평 부지를 ▲주거단지 36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100만평 ▲상업·업무단지 61만평 ▲관광레저

단지 103만평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라면 영산강 주변에 거대한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상업단지에는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몰류단지, 농산물, 에너지 관련 상품거래소가 들어선다. 야외공연장, 아쿠아리움, 스포츠시설, 놀이동산도 계획에 담겨 있다.

남구는 사업이 확정·추진될 경우 영호남 격차해소,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한꺼번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환경연합은 이 같은 사업 구상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승촌보 주변을 개발하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또 다시 파괴되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사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 자체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공간이 충분히 계획돼 있어 승촌보 개발사업은 환경적으로도 사업적

으로도 타당성이 없다"며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지역민에게 개발 욕구를 부추겨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되고 사업비의 상당부분 수자원공사와 민간자본이 맡게돼 4조원짜리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추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남구가 의욕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군불을 지피는 형태다. 광주시와 광주도 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TF에 참여한 점,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온 점에 미뤄 시행예정 3사와 남구가 상당부분 교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월부터 사업 구상을 해온 남구는 지난 2월 승촌보 개발사업 TF를 꾸려 첫 회의를 열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현장을 견학했다. 20일 오후 3시에는 주민, 환경단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포지엄을 연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달맞이 18:01
해질녘 19:33 날짐 04:33

자외선 주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덥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5/32	보성	맑음	10/28
목포	맑음	14/27	순천	맑음	14/28
여수	맑음	16/25	영광	맑음	13/30
나주	맑음	12/31	진도	맑음	12/28
완도	맑음	14/28	전주	맑음	14/30
구례	맑음	10/31	군산	맑음	14/29
강진	맑음	12/29	남원	맑음	12/31
해남	맑음	11/29	축산도	맑음	15/22
장성	맑음	11/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북풍~동풍 0.5	북풍~동풍 0.5
남부	북풍~동풍 0.5~1.5	북풍~동풍 0.5~1.5
남해	북풍~동풍 0.5~1.0	북풍~동풍 0.5~1.5
서부	북풍~동풍 1.0~2.0	북풍~동풍 1.0~2.0
남부	북풍~동풍 1.0~2.0	북풍~동풍 1.0~2.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22	06:40
	13:21	18:43
여수	08:08	02:11
	20:43	14:08

주간 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	☀	☀	☁	☀	☀	☀
16/31	16/31	16/29	16/26	15/26	15/29	15/27



호남예술제 '통영개타령' 합창하는 송원초

19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회 호남예술제 합창 경연에서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통영개타령'을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홍화성 동구 부구청장 '봐주기 징계' 논란

광주시 감사위, 경징계 예고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구청장 권한대행 기간 본인 소유 목목 수백 그루를 구청에 납품한 홍화성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경징계를 예고해 논란이다.

1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홍 부구청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징계는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6월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홍 부구청장이 자신의 목목 220그루를 식목일 행사용으로 납품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압을 행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또 홍 부구청장이 3~4월 사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12명의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합격한 A(31)씨에게 사전 채용정보를 미리 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제3자에 의한 금품수수 정황이 없어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홍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기간 위압을 행사해 본인 소유 목목 수백 그루를 구청에 납품했음에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판단이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홍 부구청장이 환경미화원 면접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였음에도 면접과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홍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기간 수의계약부터 모든 사업에 사사건건 관여했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내일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광주전남녹색연합 캠페인

광주전남녹색연합은 21일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을 맞아 영산강 하구둑(키누경 기장 부근)에서 캠페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영산강 하구둑 개방 관련 환경활동가의 강연 ▲물고기 깃발 만들기 ▲물고기 이동 퍼포먼스로 구성됐다.

문의: 광주전남녹색연합 062-233-6501.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 무등경기장~금남로 차량시위 재현

이달말까지 5·18기념행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지났지만 이달 말까지 다양한 5·18기념행사가 이어진다.

20일 오후에는 5·18구속부상자회가 추진하는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과 차량시위(무등경기장~금남로)가 재현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지역 택시 기사들은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에 맞서 택시 수백대를 몰고 시내를 행진했었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금남로)에서 기록물 속 인물과

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입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중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노병우 80년 5월 당시 CBS기자, 지만원에 의해 광주로 침투한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받은 광주 시민 고광덕씨가 청중들과 얘기를 나누는 다.

주말인 21일 오후 7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5·18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27일에는 5·18구속부상자회 주관으로 제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린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직선제 세부 선출방식 결정 또 연기

이사회, 다음달 23일 논의

조선대 이사회가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 직선제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 선출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이사회가 대학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열린 제 76차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직접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달 23일 열리는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교수들의 해외 연수·출장과 방학이

본격화되는 6월 중순 이후가 되면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총장 선출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사회는 앞서 구성원별 투표 비율을 전임교원의 경우 70%로 정하고 직원·학생·동문 등이 나머지 30%를 채우기로 하는 방안을 결의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투표권 확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가 하면,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를 한다'는 결선투표 방안 등도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안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염,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